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944-01

## 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산업 및 수출현황 분석

전 상 곤 | 경상대학교

---

이 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EU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분석(2018)”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여기에 주 유럽 농무관을 통한 인터뷰 조사, 온오프라인 자체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EU 국가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국내 쇠고기 시장으로의 수출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해서 기존 연구보다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진행하였다.

# 차 례

---

##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2.1. 국내외 연구동향 .....	3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3. 연구방법 및 내용 .....	6

## 제2장 EU/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산업현황

1. EU의 소 산업 현황 .....	7
1.1. EU 소 사육의 특징 .....	7
1.2. EU 소 사육 및 쇠고기 수급현황 .....	10
2. 프랑스의 소 산업 현황 .....	14
2.1. 소 사육 현황 .....	14
2.2. 사육 품종과 비육 시스템 .....	15
2.3. 수급 현황 .....	22
2.4. 관련 정책 .....	23
3. 아일랜드의 소 산업 현황 .....	24
3.1. 소 사육 현황 .....	24
3.2. 사육 품종과 비육 시스템 .....	26
3.3. 수급 현황 .....	29
3.4. 관련 정책 .....	30

### 제3장 EU/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출 현황 및 경쟁력

1. EU산 쇠고기 수입요청 현황 .....	32
1.1. 국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해제 절차 .....	32
1.2. EU산 쇠고기의 IRA 요청 현황 .....	34
2. EU/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출 현황 및 가격 비교 .....	35
2.1. EU의 쇠고기 수출 및 가격 .....	35
2.2.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쇠고기 수출 및 가격 .....	38
2.2.1 프랑스산 쇠고기 냉장/냉동 수출 단가 비교 .....	40
2.2.2 아일랜드산 쇠고기 냉장/냉동 수출 단가 비교 .....	41

### 제4장 EU/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입 가능성 검토

1. 일본의 EU산 쇠고기 수입 사례 검토 .....	45
2. EU/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국내 수입 가능성 검토 .....	50
2.1. EU/프랑스/아일랜드의 쇠고기 수출 가능 여력 검토 .....	50
2.2. 일본사례의 시사점 .....	52
2.3. EU산 쇠고기의 국내로의 수입 가능성 검토 .....	53

###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59
------------	----

## 표 차 례

---

### 제1장

표 1-1. EU산 쇠고기 수입관련 일지 .....	2
------------------------------	---

### 제2장

표 2-1. 국가별 소 사육 마릿수 .....	10
표 2-2. 국가별 쇠고기 생산량 .....	11
표 2-3. 국가별 쇠고기 소비량 .....	12
표 2-4. EU 및 수입허용 요청국(1그룹)의 소 사육마릿수 추이 .....	13
표 2-5. 프랑스의 소 사육두수와 쇠고기 생산량 .....	14
표 2-6. 프랑스의 용도별 소 사육현황 .....	15
표 2-7. 프랑스 고기소 품종과 사육두수(2018년 기준) .....	16
표 2-8. 프랑스 지역별 고기소 사육두수(2018년 기준) .....	16
표 2-9. 프랑스 지역별 도축장 현황 .....	19
표 2-10. 프랑스 지역별 가공장 현황 .....	20
표 2-11. 프랑스의 쇠고기 생산량 .....	22
표 2-12. 아일랜드의 용도별 소 사육현황 .....	24
표 2-13. 아일랜드의 국가별 생우 수입 현황 .....	25
표 2-14. 아일랜드의 소 품종 .....	26
표 2-15. 아일랜드 품종별 소 도축 처분두수 .....	27
표 2-16. 아일랜드 지역별 소 분포 .....	27
표 2-17. 아일랜드 연간 도축두수 중 도축 연령(주령, 월령) .....	28
표 2-18. 아일랜드 정부 승인 도축장 수 .....	28
표 2-19. 아일랜드 연도별 고기 생산량 .....	29

표 2-20. 아일랜드의 쇠고기 생산, 수출입, 1인당 소비량 .....	30
--	----

### 제3장

표 3-1.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요청 현황 .....	34
표 3-2. EU산 쇠고기 수급표 .....	35
표 3-3. 수출국별 수출단가 비교 .....	36
표 3-4. 국내 쇠고기 주요 수출국별 수출여건 비교(2016년 기준) .....	37
표 3-5. 1 그룹 국가들의 수출 단가 비교 .....	38
표 3-6. 1 그룹 국가들과 국내로의 주요 쇠고기 수출국 단가 비교 .....	39
표 3-7. 프랑스 냉장육과 냉동육의 수출단가 .....	40
표 3-8. 프랑스의 국가별 수출액과 수출량 .....	41
표 3-9. 아일랜드의 전세계로의 쇠고기 수출량 .....	42
표 3-10. 아일랜드의 냉장육과 냉동육의 수출량(2018년) .....	43
표 3-11. EU 회원국의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량(냉육+냉동육) .....	44

### 제4장

표 4-1. 일본의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과 비중 .....	46
표 4-2. 일본의 EU산 쇠고기 수입현황 .....	47
표 4-3. EU산 쇠고기 생산, 수입, 수출 비교 .....	51
표 4-4. EU 및 수입허용 요청국(1그룹)의 소 사육마릿수 추이 .....	52

## 그 립 차 례

---

### 제2장

그림 2-1. 유럽의 쇠고기 이력추적 .....	9
그림 2-2. 유럽의 아시아로의 쇠고기 수출 .....	9
그림 2-3. 프랑스 지역별 고기소 사육 밀도 .....	17
그림 2-4. 프랑스 비육우의 사료 형태 비율 .....	18
그림 2-5. 프랑스의 지역별 도축장 규모 .....	20

### 제3장

그림 3-1. 수입위험분석 흐름도 .....	33
그림 3-2. 수출국별 가격 경쟁력 비교 .....	37
그림 3-3. 프랑스, 아일랜드, 주요 쇠고기 수출국 단가 비교 .....	39

### 제4장

그림 4-1. 일본으로의 수출 국가별 쇠고기 단가 비교(냉장) .....	49
그림 4-2. 일본으로의 수출 국가별 쇠고기 단가 비교(냉동) .....	49
그림 4-3. 일본으로의 수출 국가별 쇠고기 단가 비교(냉장+냉동) .....	50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은 WTO/SPS 회의, 한-EU FTA/SPS 회의 및 한-EU 무역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게 쇠고기·돼지고기 등 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는 EU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연구수행 후, 요청 순서대로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하고 2012년 12월 이를 EU측에 통보하였다.

- EU측은 최근 쇠고기 수입과 돼지고기 지역화 문제에 대한 발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sup>1</sup>이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3개월 내 최소 1개의 EU 회원국에 대해서라도 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WTO제소 등

---

1 지난 2016년 12월 제6차 한-EU 무역위에서는 Malmstrom 통상담당집행위원이 EU 직원에게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찾아라”라고 했으며, 2017년 4월 주벨기에 대사가 EU 집행위 Jean-Luc Demarty 통상총국장을 면담할 때 “한-EU FTA 성과에도 불구하고, SPS,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 개선 여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같은 달, EU 집행위 Jerzy Plewa 농업총국장을 면담 시에는 “쇠고기 수입과 돼지고기 지역화 인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향적 입장을 요청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우리 측에 통보한 상태이다.

- 광우병(BSE)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EU산 쇠고기 수입금지에 대해 EU측은 2006년부터 수입을 요청하였으며, 1그룹(4개국<sup>2</sup>)에 대하여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하여 덴마크·네덜란드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허용절차가 완료되어('19.7.30) 수입이 가능하다. 프랑스·아일랜드는 위험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과정에 있으며, 현재까지 9개 EU회원국<sup>3</sup> 및 스위스에서 자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이다.
- 이에 최근 정부 및 농업계에서는 EU산 쇠고기 시장개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EU산 쇠고기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 해제가 국내 축산분야에 미칠 파급영향을 사전적(ex-ante)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표 1-2. EU산 쇠고기 수입관련 일지

2006. 10.	쇠고기 수입허용 요청
2011. 07.	한EU FTA 잠정발효
2012. 12.	수입허용 절차 개시
2013. 05.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1그룹)
2016. 05.	프랑스 현지조사 실시(식약처 위생평가 추진)
2016. 07.	프랑스, 아일랜드에 추가질문 발송
2016. 12.	한EU 무역위에서 통상담당집행위원의 수입 해결책 지시
2017. 03.	덴마크, 네덜란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네덜란드 현지조사 실시(식약처 위생평가 추진)
2017. 04.	주 벨기에 대사, EU 집행위 통상총국장 면담시 개선 여지 발언
	주 벨기에 대사, EU 집행위 농업총국장 면담시 쇠고기 수입 관련 우리나라의 전향적 입장 요청
	우리측 정부 현 상황 진단 및 대응방안 검토

2 아일랜드(2006년 요청), 네덜란드(2007), 프랑스(2008), 덴마크(2011)

3 1그룹(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2그룹(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3그룹(독일, 헝가리, 벨기에, 스웨덴)



- 본 연구는 EU산 쇠고기의 SPS 조치 해제가 우리나라 축산업 및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특히, EU 국가 중 제 1그룹에 속한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재개될 경우 이들 국가들의 수출 가능성과 이로 인해 국내 쇠고기 산업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 2.1. 국내외 연구동향

- 수입금지 조치의 영향을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Yue and Beghin(2009)은 소비자 선택에서 외부해(corner solution)를 추정하는 Wales and Woodland(1983)의 접근법을 이용하여 SPS 수입금지 기간과 수입허용 기간의 양자간 무역흐름의 변동을 활용하여 뉴질랜드산 사과에 시행한 호주의 SPS 조치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일 경우에는 기존의 SPS 영향추정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한석호(2016, 2017)에서는 과거 어느 국가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존재하지 않은 SPS 수입금지 품목인 우리나라 사과, 배를 중심으로 가격 격차 방법론(price-wedge)을 이용하여 SPS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를 추정하였다.
  - 국산과 외국산의 품질차이에 기인한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도(home-good preference) 및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기 위해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SPS 조치가 시행되지 않

았다면 들어올 수 있었던 과거 가상의 수입량을 추정하였다.

- 또한 사전영향평가를 위해 추정된 가상의 수입량을 이용하여 수입수요 함수의 계수를 계측하였다. 이후 KREI-KASMO 2015<sup>4</sup> 모형에 수입수요 함수를 반영하는 모듈을 삽입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SPS 수입금지 해제 시 농업분야 직·간접 예상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 한석호 외(2016)는‘한·EU FTA 이행상황 평가’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한·EU FTA 추진현황 및 이행기간 동안의 수급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외 FTA 사후 효과분석모형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와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한·EU FTA 경제적 사후효과를 평가하였다.
  - ‘기 체결 FTA 사후영향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한석호 외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를 통해서 개발된 영향평가 표준방법론을 근거로 KREI-KASMO 2015를 활용하여 한·EU FTA 사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 서홍석 외(2016)는‘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6 운용·개발 연구’에서 국내외 농업환경 및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KREI-KASMO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농업부문의 중장기 전망과 정책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견고한(robust) 모형을 유지하고자하였다.
  - 농축산물의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을 위해 주요 국가별, 주요 품목에 대한 변수를 신규 개발·보완하여 모형을 확장하였다.
  - 또한, 수출입관련 국가별, 품목별 자료의 세분화 및 추가적인 축적으로 수입수요함수와 수출공급함수를 개발·재추정함으로써, 시장개방의 파급 영향 분석과 함께 한국농업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다.

---

4 KREI-KASMO 2015의 이론 및 구조는 한석호 외 (2015)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5 운용·개발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 이형우 외(2016)는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시장 차별화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공적분(선형, 비선형) 검정, VECM 분석, 수요함수 추정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우 고기와 수입 쇠고기 시장의 차별화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시장차별화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을 시도하였으며, 쇠고기의 부위, 보관상태, 수입국에 따라 시장 차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기존의 연구들보다 수입 쇠고기 가격의 변화가 한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가격 측면을 고려할 경우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는 시장에서 완전히 차별화되지 않으며, 향후 고품질의 외국산 냉장 쇠고기 수입비중이 늘어날 경우 한우고기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국내에서 SPS 조치와 관련된 영향 분석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석호(2016, 2017)연구에서 국산 선호도를 반영한 가격 격차 방법론(price-wedge)을 이용하여 그동안 수입이 없었던 사과, 배를 중심으로 SPS 조치 해제가 국내농업분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 전부이다.
- 한석호(2016, 2017)연구에서는 모든 국가로부터 과거 수입실적이 전무했던 품목(사과, 배)에 대해서 영향분석방법론을 개발하고 국내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계측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인 EU 쇠고기 수입개방 효과분석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소 상이하다.

- 쇠고기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과거 수입실적이 있으나, EU산 쇠고기의 수입실적<sup>5</sup>이 없기 때문에 EU산 쇠고기의 SPS 조치 해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방법론이 필요하기에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 3. 연구방법 및 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인 EU산 쇠고기의 SPS 조치 해제에 따른 수입 영향평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연구의 주된 관심인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소산업, 수급현황, 수출현황, 가격 경쟁력 등에 관한 광범위한 온오프라인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이들 국가들의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 가능성과 그 경제적 여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EU/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EU/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의 수출 현황 및 가격 경쟁력에 대해 분석한다. 4장에서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SPS 조치 해제에 따른 수출 가능성과 한국 쇠고기 산업으로의 여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

<sup>5</sup> EU산 쇠고기의 경우, 1996~2006년까지 일정기간동안 열처리된 가공용 쇠고기 수입 실적이 존재한다.

## 제2장

---

### EU/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산업 현황

#### 1. EU의 소 산업 현황

##### 1.1. EU 소 사육의 특징

- EU 회원국들은 높은 식품 안전과 지속가능한 기준에 맞춘 식품안전법에 따라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회원국이자 리더인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돼지고기 및 소고기 - 식품안전과 지속가능성에서의 우수성”이라는 공동 사업을 벌이고 있다.
- 유럽의 쇠고기 생산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자연이 주는 다양한 환경적 조건을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고 있다. EU내 주된 쇠고기 생산은 주로 두 개의 커다란 품종 분류와 그들의 결합종에 의해 생산된다. 하나는 “유럽대륙 품종”으로 불리는 샤롤레

(Charolais)와 리무진(Limousine)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품종”으로 불리는 애버딘 앵거스(Aberdeen Angus), 헤어포드(Hereford), 쇼손(Shortthor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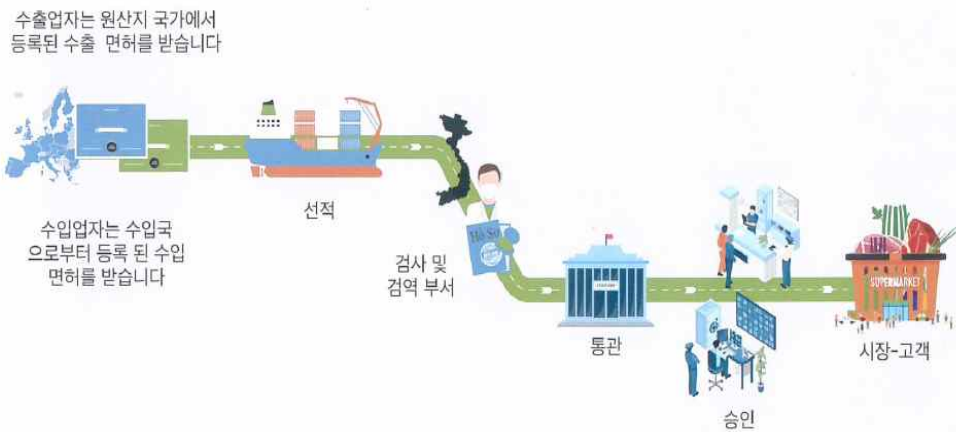
- 대륙품종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더 크고 늦게 성장하며 지방이 적은 편이다. 반면 영국 품종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더 작고 일찍 성장하며 기름진 부위를 많이 생산한다.
- EU에서는 소에 대한 식별제와 추적이력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들이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선육, 냉장육 혹은 가공된 모든 쇠고기는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과정을 농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정보 라벨이 제품 뒷면에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 EU는 품질보증을 위해 원산지명칭보호(PDO: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지리적표시보호(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전통특산품보증(TSG: Traditional Specialties Guaranteed) 등을 운영하고 있다.
- EU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수의학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소에게 투여할 수 있는 허용가능한 물질과 허용할 수 없는 물질을 규제하는 세부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호르몬과 성장촉진제는 금지되고 항생제는 수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허용된다.
- 쇠고기 도체는 EUROP 기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 근육, 고기의 지방함량과 같은 요소들이 등급의 결과에 크게 작용한다.

그림 2-1. 유럽의 쇠고기 이력추적



자료: 2019 유럽 돼지고기 및 쇠고기 관련 세미나 자료집. 2019년 6월 13일 서울 롯데호텔.

그림 2-2. 유럽의 아시아로의 쇠고기 수출



자료: 2019 유럽 돼지고기 및 쇠고기 관련 세미나 자료집. 2019년 6월 13일 서울 롯데호텔.

## 1.2. EU 소 사육 및 쇠고기 수급 현황

- 2016년 기준 국가별 소 사육마릿수를 살펴보면(USDA 기준), 인도가 302,600천 마리(30.6%) 가장 많았으며 브라질 219,180천 마리(22.2%), 중국 100,275천 마리(10.1%)순이었다. EU의 사육마릿수는 89,152천마리로 9.0% 차지하였다(표 2-1).
- 쇠고기 생산량 기준으로는 미국이 11,502천 톤(1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라질 9,284천 톤(15.4%), EU 7,830천 톤(12.9%)였다. 사육마릿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5번째 규모였으나, 쇠고기 생산량으로는 3번째 규모로 조사되었다(표 2-2).

표 2-1. 국가별 소 사육마릿수

단위: 천 마리

	2015	2016	비중(%)
인도	301,100	302,600	30.6
브라질	213,035	219,180	22.2
중국	100,450	100,275	10.1
미국	89,143	91,918	9.3
EU	88,406	89,152	9.0
아르헨티나	51,545	52,565	5.3
호주	29,152	18,879	1.9
러시아	19,152	18,879	1.9
멕시코	17,120	16,615	1.7
터키	14,345	14,127	1.4
캐나다	11,925	12,035	1.2
전세계	979,639	988,595	100%

자료: USDA/FAS



표 2-2. 국가별 쇠고기 생산량

단위: 천 톤

	2015	2016	비중(%)
미국	10,817	11,502	19.0
브라질	9,425	9,284	15.4
EU	7,684	7,830	12.9
중국	6,700	7,000	11.6
인도	4,100	4,200	6.9
아르헨티나	2,720	2,650	4.4
호주	2,547	2,125	3.5
멕시코	1,850	1,879	3.1
파키스탄	1,710	1,750	2.9
터키	1,423	1,642	2.7
러시아	1,355	1,335	2.2
전세계	59,720	60,466	100%

자료: USDA/FAS

- 한편, 쇠고기 소비량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쇠고기 소비량을 살펴보면 미국이 11,676천 톤(19.9%)로 가장 많았으며, EU가 7,854천 톤(13.4%)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3. 국가별 쇠고기 소비량

단위: 천 톤

	2015	2016	비중(%)
미국	11,276	11,676	19.9
EU	7,744	7,854	13.4
중국	7,339	7,759	13.2
브라질	7,781	7,652	13.0
아르헨티나	2,534	2,434	4.1
인도	2,294	2,436	4.1
멕시코	1,797	1,809	3.1
러시아	1,966	1,843	3.1
터키	1,457	1,654	2.8
파키스탄	1,636	1,676	2.9
일본	1,186	1,215	2.1
전세계	57,877	58,739	100%

자료: USDA/FAS

- EU의 소 사육마릿수는 2001년 9천 4백만 마리에서 2016년 8천 9백만 마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세계 곡물과동(애그플레이션)의 여파로 2010년 사육 마릿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 수입을 요청한 4개국의 경우, 프랑스의 사육 마릿수는 국내보다 약 7배가 큰 1,900만 마리(EU 전체의 21%)이고, 아일랜드는 국내보다 약 2배가 많은 661만 마리(EU 전체의 7%)이다. 덴마크는 국내의 약 1/2 수준인 155만두이고, 네덜란드는 국내의 약 1.5배인 429만두이다. 프랑스의 소 사육두수는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고, 아일랜드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4. EU 및 수입허용 요청국(1그룹)의 소 사육마릿수 추이

1.2.단위: 천 두

	EU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2012년	87,054	19,052	6,253	1,607	3,985
2013년	87,106	19,129	6,309	1,583	4,090
2014년	87,619	19,271	6,243	1,553	4,169
2015년	88,406	19,406	6,422	1,566	4,315
2016년	89,152	19,004	6,613	1,554	4,294

자료: Euro stat.

- EU의 육우 도축 마릿수는 2007년 이후 2,800만 마리 수준, 생산량으로는 800만 톤을 유지하였으나, 세계 곡물파동(애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2012년 도축 마릿수도 감소하다가 세계 곡물가격이 안정을 찾기 시작한 이후 2014년부터는 도축 마릿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쇠고기 소비량도 도축이 감소했던 세계 곡물 파동시기에 크게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2012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 2. 프랑스의 소 산업 현황

### 2.1. 소 사육 현황

- 프랑스의 소 사육현황은 2017년 기준(FAO 기준) 19,244천두(EU 전체 사육두수 89,152천두의 22%)이고, 쇠고기 생산량은 2016년 기준 1,458천톤(EU 전체 생산량 780만톤의 19%)이고, 소 사육농가수는 2016년 기준 169,860호(EU 전체 소 사육농가 230만호의 7%)에 해당한다.
- 프랑스의 면적당(km<sup>2</sup>) 소 사육밀도는 34.8두로 대한민국(34.9두)과 비슷하다. 프랑스의 국토면적과 사육두수는 대한민국의 약 5.5배 수준이다.

표 2-5. 프랑스의 소 사육두수와 쇠고기 생산량 단위: 천두, 천톤

구분	2015	2016	2017
사육두수 (FAO, 천두)	19,387	19,326	19,233
쇠고기 생산량 (OECD, 천톤)	1,447	1,458	

자료: FAO, OECD

- 프랑스의 소를 용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비육우가 10,904천두이고 젖소가 7,643천두이다.
  - 비육우 10,904천두 중 2세 이상은 2,474천두, 1~2세는 3,182천두, 1세 미만 송아지는 5,238천두이다. 비육우 10,094천두 중 도축두수는 1,474천

두에 다다른다.

- 젖소 7,643천두 중 착유우는 3,552천두이고 미경산우는 4,091천두이다.

표 2-6. 프랑스의 용도별 소 사육현황

단위: 천두

구분	전체	비육우				젖소
		2세 이상	1~2세	1세 미만	소계	
2017	18,954	2,550	3,381	5,271	11,202	7,751
2018	18,547	2,484	3,182	5,238	10,904	7,643

자료: 프랑스 농업부

## 2.2. 사육 품종과 비육 시스템

### □ 소의 품종

- 프랑스 쇠고기 소비량의 약 60%는 비육용에서 공급되고 나머지 40% 정도는 유우용(젖소)에서 공급된다.
- 프랑스에서 쇠고기 공급을 위해 사육 중인 주된 품종 10개는 아래와 같다.
  - 전통적 품종으로 Charolais, Limousine, Blonde d'Aquitaine, Rouge des Prés 등이 있다.
  - 거친 야생 환경에 적합한 Salers, Gasconne, Aubrac 등이 있다.
  - 지역적 품종으로 Blanc Bleu, Bazadaise, Parthenaise 등이 있다.
- 프랑스에서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사육되는 주요 품종과 사육 마릿수는 아래와 같다. 2018년 기준 약 398만 마리가 고기만을 공급하기 위해 사육중이다.

표 2-7. 프랑스 고기소 품종과 사육두수(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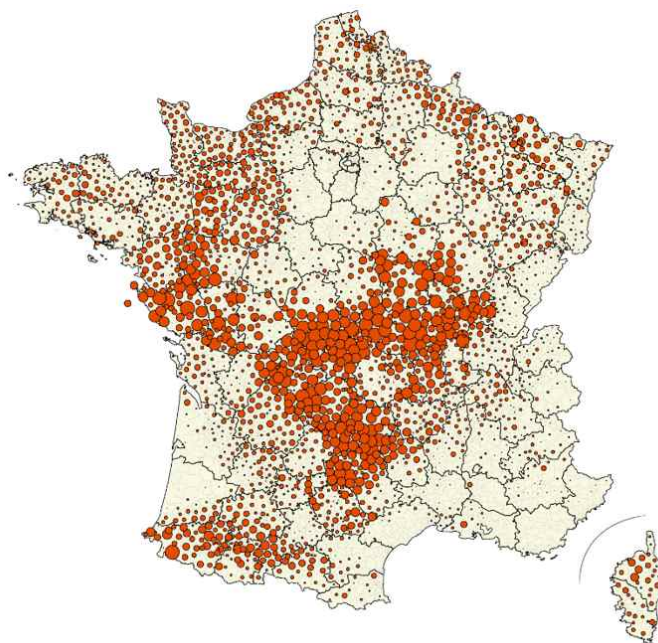
품종	사육두수
Aubrac	206,000
Blonded'Aquitaine	485,000
Charolaise	1,450,000
Limousine	1,105,000
Salers	217,000
Others	815,000

- 지역별로 사육중인 비육용 고기소 사육두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8. 프랑스 지역별 고기소 사육두수(2018년 기준)

지역	사육두수
Grand Est	267,100
Nouvelle Aquitaine	886,200
Auvergne-Rhône-Alpes	659,900
Bourgogne-Franche-Comté	502,700
Bretagne	114,200
Centre-Val de Loire	192,800
Corse	33,300
Ile-de-France	5,600
Occitanie	514,200
Hauts de France	148,600
Normandie	221,300
Pays de la Loire	414,600
Provence-Alpes-Côte d'Azur	17,200
France(전체 두수)	3,97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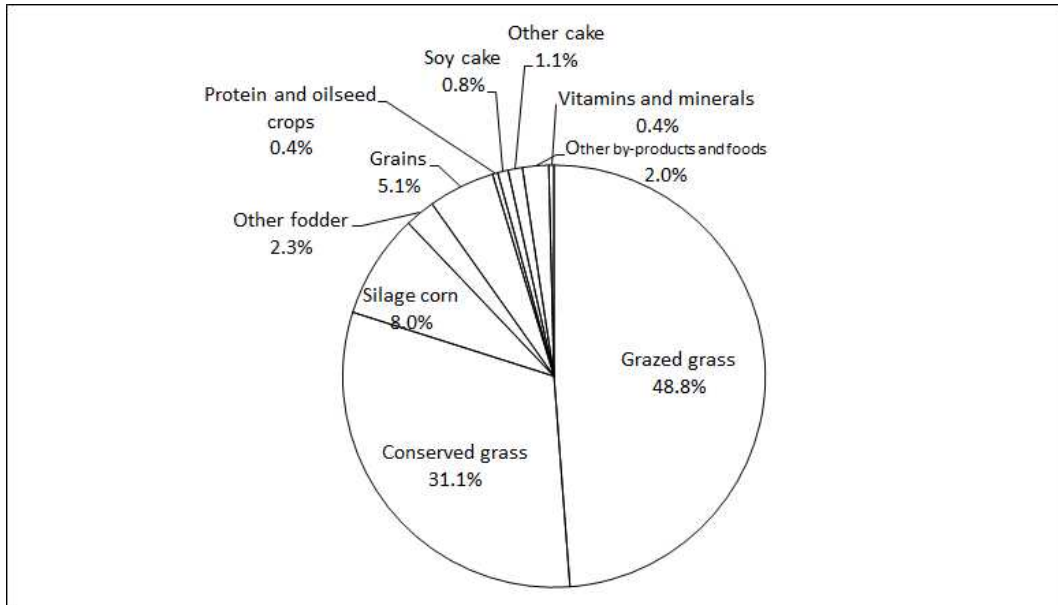
그림 2-3. 프랑스 지역별 고기소 사육 밀도



#### □ 소의 사육과 비육

- 프랑스의 소 비육은 미국과 같은 대규모 사육장(feedlot)이 아니라 농가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사육되고 있다. 한 농가당 대략 60두 내외(젃소와 기타 소를 포함하면 100두 초과)를 사육한다. 프랑스는 환경과 동물복지와 관련된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할 정도로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 프랑스 소 사육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비육용 소의 약 90%는 자급자족형 농가에서 사육된다.
  - 비육용 소의 80%는 큰 범주에서 목초사육(grass-fed)에 해당된다.
  - 평균적으로 목초가 48.8%, 저장조사료가 31.1%, 사일리지가 8.0%이고 나머지 부산물과 첨가물로 이루어진다. 물론 작물과 목초가 어느 정도 재배되는 지에 따라서 이러한 비율은 달라지며 또한 부산물과 첨가물의 비율도 달라진다.

그림 2-4. 프랑스 비육우의 사료 형태 비율



자료: [www.idele.fr](http://www.idele.fr). Cattel feeding in France

- 프랑스에서는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대규모 비육장(feedlot)과 같은 형태의 곡물비육은 하지 않고 대부분 농가 단위로 비육된다. 대략 54,000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미경산우, 암소, 수소 등을 비육하고 있으며, 수소만 전문적으로 비육하는 농장이 약 5,000 농장에 이른다. 곡물비육은 주로 옥수수 사일리지에 의존된다.
- 소의 성별 곡물비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미경산우와 암소는 3~12세까지는 목초비육되고 마지막 비육시기에 3~6개월 정도 곡물비육된다.
  - 수소는 모유수유 이후 6~8개월 정도 목초비육되고 이후 9~11개월 정도 곡물비육된다. 젖소 수컷의 경우 일반 수소와 비슷하지만 도축월령이 조금 빠르다.
  - 젖소용 육우송아지만 전문적으로 비육하는 농가가 대략 2,700여 농가이다.



- 프랑스는 동물복지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 수소의 거세비율은 높지 않다. 2010년 기준 거세비율이 10%였는데 2018년 기준 8%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도축과 생산

- 소의 성별 평균 도축월령은 다음과 같다.
  - 유우용(젖소)는 대략 94개월령에 도축된다.
  - 육우용 암소는 대략 74개월령에 도축된다.
  - 육우용 미경산우는 대략 33개월령에 도축된다.
  - 유우용 미경산우는 대략 11개월령에 도축된다.
  - 송아지는 5~7개월령에 도축된다.
  - 육우용 수소(거세)는 대략 36개월령에 도축된다.
  - 육우용 수소(비거세)는 대략 20개월령에 도축된다.
- 2019년 6월 15일 기준, 프랑스에는 188개의 도축장이 있다. 이 중 21개는 연간 도축규모가 5만두 이상이고, 26개 도축장은 2만~5만두 규모이다. 지역별 도축장 현황과 가공장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 바란다.

표 2-9. 프랑스 지역별 도축장 현황

지역	연간 도축규모 5만두 이상	연간 도축규모 2~5만두
Grand Est	2	2
Nouvelle Aquitaine	1	3
Auvergne Rhône Alpes	3	4
Normandie	2	4
Bourgogne Franche Comté	2	2
Bretagne	4	4
Occitanie	1	2
Hauts de France	1	3
Pays De Loire	5	2
Paca Corse	0	0
Centre	0	0
Ile de France	0	0
Total	21	26

자료: Normabev

표 2-10. 프랑스 지역별 가공장 현황

지역	가공장 수
Auvergne-Rhône-Alpes	59
Bourgogne-Franche-Comté	22
Bretagne	41
Centre-Val de Loire	20
Corse	6
Grand-Est	35
Hauts-de-France	37
Ile-de-France	29
Normandie	33
Nouvelle-Aquitaine	46
Occitanie	86
Pays-de-la-Loire	26
Provence-Alpes-Côte d'Azur	23
Total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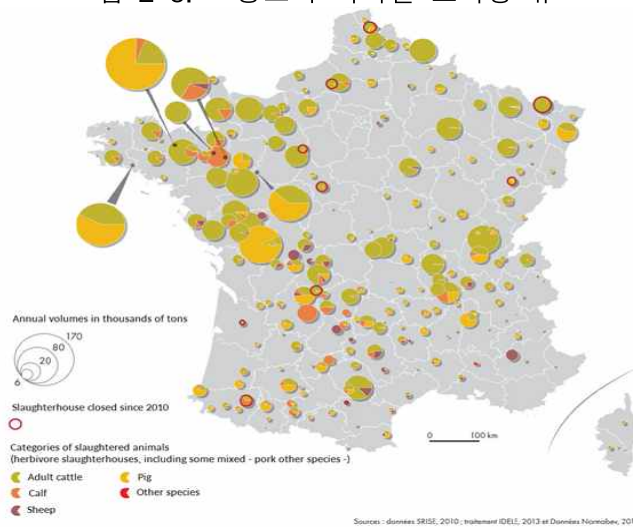
자료:

<https://agriculture.gouv.fr/liste-des-etablisements-agrees-ce-conformement-au-reglement-ce-ndeg8532004-lists-ue-approved>

[https://fichiers-publics.agriculture.gouv.fr/dgal/ListesOfficielles/SSA1\\_VIAN\\_ONG\\_DOM.pdf](https://fichiers-publics.agriculture.gouv.fr/dgal/ListesOfficielles/SSA1_VIAN_ONG_DOM.pdf)

- 지역별 도축장 규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5. 프랑스의 지역별 도축장 규모



#### □ 등급과 품질

- 프랑스의 등급제는 EU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EUROP 도체분류가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체분류를 위해 EU에서는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규정 No. 1208/81와 No. 2930/81이 제정되었다.
- 도체분류는 먼저 5단계로 구분되며, 각각은 지방함량(fat)에 따라 다시 5단계로 구분되어 모두 25개의 분류 등급으로 나뉜다. 먼저 5등급으로 E는 아주우수, U는 매우 좋음, R은 좋음, O는 보통, P는 부족을 나타낸다. 이들 각각은 지방함량(fat)에 따라 1은 적음, 2는 약간, 3은 보통, 4는 많음, 5는 매우 많음으로 나뉜다.
- 도체분류체계에 현재로서는 마블링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육농가에게 향후 고려될 요인에 대한 가이드 마련을 위해 영양과 마블링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연구가 진행중이다.
- 프랑스 쇠고기 소비량 중 가구 소비의 대략 13% 정도가 냉동육이다.

#### □ 산업

- 프랑스에서 소는 농가에 의해서만 사육된다. 소의 도축과 가공은 일반회사 혹은 협동조합에 의해 행해진다. 쇠고기는 일반회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도축 준비가 된 대형 소의 33%는 협동조합을 통해 거래되며, 협동조합에서는 전체 소와 송아지의 22%를 도살한다.
- 소의 도축, 가공, 수출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 자본은 아일랜드계 기업으로 EVA Saint-Pierre/Dives와 ELIVIA이 있고, 벨기에 기업으로 SARREGUEMINES, AIM ANTRAIN, CHAPIN Rennes 등이 있다.
- 프랑스의 쇠고기 수출량은 대략 22만톤이며 이 중 88% 정도가 EU 역내로

수출되며, 나머지가 EU 역외로 수출되고 있다.

-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의 사육과 가공 등에 관여하거나 투자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일부 도축장은 지방 정부의 소유로 도축 서비스만(상품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음)을 농가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 2.3. 수급 현황

- 프랑스는 EU 국가들 중에서 쇠고기 생산량은 1위, 치즈, 버터, 우유는 2위로, 유럽 내 최대 수출국이다.
- 2016년 기준, EU 쇠고기 생산은 780만톤(세계 생산량의 13%)이고 이 중 프랑스 생산량은 150만톤(EU 생산량의 19%, 세계 생산량의 2.5%)이다(참고로 미국은 1,150만톤 생산으로 세계 생산량의 19%를 차지한다.). 2018년 프랑스 쇠고기 생산량은 144만톤으로 추정된다.

표 2-11. 프랑스의 쇠고기 생산량

단위: 천두, 천톤

연도	쇠고기		
	생산(천두)	중위무게(kg/두)	생산량(천톤)
2017	4,661	307	1,433
2018	4,607	312	1,436

자료: 프랑스 농업부

- 프랑스 쇠고기 생산량 150만톤(2016년 기준) 중 수출량은 약 20만 7천톤으로, 20만톤은 EU 역내로의 수출이고 나머지 7천톤만이 EU 역외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 2016년 기준, EU 쇠고기 역외수출은 21만톤(세계 수출량의 2.2%)이고 이

- 중 프랑스의 역외 수출량은 7천톤(EU 수출량의 3%)으로 굉장히 적은 양이 EU 외부로 수출되고 있다.
- 반면, 2016년 EU 쇠고기 역내교역량은 231만톤(EU 수출량의 92%)으로, 이 중 프랑스의 역내교역량은 20만톤(EU 역내교역량의 9%)이다.
  - 참고로 2017년 6월 기준, 프랑스 쇠고기 가격 337.77유로/100kg으로 동기간 미국 평균 가격 430.79유로/100kg의 78% 수준이다.
- 프랑스의 수출량은(2016년 기준)은 역내교역량 20만톤과 역외 수출량 7천톤으로 약 20만 7천톤에 이른다. 이 중 역외 수출량은 7천톤으로 역외 쇠고기 교역을 위한 유통선을 따로 확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수출을 늘리기에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 2.4. 관련 정책

- 수출보조는 CMO(common market organization) 규정에 따라 EU에서 약 4~5년 전에 사라졌다. 이는 EU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선언이다.
- 소 사육농가는 EU의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라 직접 보조를 받는다. 아래의 두 가지 형태의 직접보조는 모두 허용보조(green box)에 해당된다.
  - 하나는 EU 공동농업정책(CAP)의 Pillar1의 직접보조(Direct Support)로 소 사육농가를 직접 보조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농가가 높은 수준의 품질 표준을 준수하고 우수한 농업 환경 관행을 준수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 보조 수준은 과거 농가의 생산량을 근거로 지급된다.
  - 또 다른 하나는 EU 공동농업정책(CAP)의 Pillar2의 환경보조(Environmental Support)로 소 사육농가를 직접 보조한다. 이 보조금은 기후변화, 물부족, 조건불리지역 등과 같은 이슈와 연관되어 보조금이 지급된다.

### 3. 아일랜드의 소 산업 현황

#### 3.1. 소 사육 현황

- 아일랜드의 소 사육현황은 2018년 기준(아일랜드 통계청 기준) 6,594천두 (EU 전체 사육두수 89,152천두의 7%)이고, 소 사육농가수는 2016년 기준 109,400호(Euro stat, EU 전체 소 사육농가 230만호의 5%)이다.

표 2-12. 아일랜드의 용도별 소 사육현황

단위: 천두, %

구분	2016	2017	2018	2017-18증감
○ 소 전체	6,613	6,674	6,594	-1.2
성별	수소 (30.5%)	2,017 (30.2%)	1,959 (29.7%)	-2.9
	암소 (69.5%)	4,656 (69.8%)	4,634 (70.3%)	-0.5
품종별	비육우 (64.4%)	4,299 (64.4%)	4,234 (64.2%)	-1.5
	젖소 (19.6%)	1,343 (20.1%)	1,369 (20.8%)	1.9
	기타 (육우) (15.8%)	1,018 (15.3%)	982 (14.9%)	-3.5
	씨수소 (0.3%)	13 (0.2%)	8 (0.1%)	-33.2

자료: 아일랜드 통계청

- 아일랜드의 면적당(km<sup>2</sup>) 소 사육밀도는 93.8두로 대한민국(34.9두)의 2.7배이다. 아일랜드의 국토면적은 702,820km<sup>2</sup>로 대한민국(100,188km<sup>2</sup>)의 70% 수준

이다.

- 아일랜드의 소를 용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체 소 사육두 수는 6,594천두로 이 중 비육우가 4,2344천두이고 젖소가 1,369천두이고 육우가 982천두이다.
- 아일랜드의 쇠고기 생산량은 2017년 기준 640천톤((EU 생산량의 8%, 프랑스 생산량의 44%)이고, 수출량은 565천톤(생산량의 88%)으로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수출 국가이다.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9.5kg로 대한민국 (11.3kg)의 1.7배 수준이다.
- 아일랜드의 생우수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8년 기준 수컷은 2,094두가 암컷은 9,168두가 수입되어 모두 11,262두가 수입되었다.

표 2-13. 아일랜드의 국가별 생우 수입 현황

	수컷	암컷	총합
미국*	2,056	8,358	10,414
오스트리아	6	14	20
벨기에	2	3	5
덴마크	5	447	452
프랑스	19	46	65
독일	1	95	96
이탈리아	2	20	22
룩셈부르크	0	1	1
네덜란드	3	184	187
총합	2,094	9,168	11,262

자료: AIM Bovine Statistics Report 2018

### 3.2. 사육 품종과 비육 시스템

□ 소의 품종과 사육

○ 아일랜드에서 사육중인 소의 품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4. 아일랜드의 소 품종

번호	품종	부호	번호	품종	부호	번호	품종	부호
1	Angler	AN	32	English Park	EP	63	Fedmontese	PI
2	Angus	AA	33	Reisona Espagnola	FE	64	Firzgauer	PZ
3	Ankole	AK	34	Galloway	GA	65	Fustertaler Sprinzen	PS
4	Armoricaïne	AM	35	Gasconne	GC	66	Red Poll	RP
5	Aubrac	AU	36	Gayal	GY	67	Reggiana	RE
6	Ayrshire	AY	37	Gelbvieh	GV	68	Romagnola	RM
7	Baltata Romaneasca	BT	38	Gloucester	GL	69	Rotbunte	RB
8	Bzadais	BZ	39	Groninger Blaarkop	GB	70	Salers	SA
9	Beefalo	BE	40	Guernsey	GU	71	Shetland	SL
10	Beefmaster	BM	41	Hereford	HE	72	Shorthorn	SH
11	Belgian Blue	BB	42	Highlanf	HI	73	Simmental	SI
12	Belted Galloway	BY	43	Holstein/Freisian	FR	74	South Devon	SD
13	Bison	BI	44	Irish Mol	IM	75	Speckle Park	SP
14	Blended Milking Shorthorn	MS	45	Jersey	JE	76	Stabiliser	ST
15	Blonde D'Aquitaine	BA	46	Kerry	KE	77	Sussex	SU
16	Blue Albion	BL	47	Lakenvelder	LV	78	Swedish REd	SR
17	Blue Grey	BG	48	Limousin	LM	79	Swiss Grey	G
18	Brahman	BR	49	Lincoln Red	LR	80	Tarantaise-Tarina	TT
19	Betome Pie-Noire	BP	50	Lithuanian Black And White	LI	81	Tyrone Black	TY
20	British White	BW	51	onghom	LH	82	Valdostana Nera	VN
21	Brown Swiss	BS	52	Luing	LU	83	Vaynol	VA
22	Carafian Black	CB	53	Maine Anjou	MA	84	Verbeterd Roodbont Vleesras	VB
23	Charolais	CH	54	Mallekorthom	MK	85	Vosgienne	VO
24	Chianina	CI	55	Marchigiana	MH	86	Wagyu	WA
25	Chillingham	CL	56	Montbeliarde	MO	87	Water Buffalo	BF
26	Danish Red	RD	57	Mi/Mry	MY	88	Welsh Black	WB
27	Devon	DE	58	Murray Grey	GS	89	Welsh White	WW
28	Dexter	DX	59	Normande	NO	90	White Galloway	WG
29	Doimeann	DN	60	Norwegian Red	NR	91	White Park	WP
30	Dwarf Zebu	DZ	61	Old English	OE	92	Yak	YK
31	East Finnish Brown	EF	62	Parternaise	PT	93	Zebu	ZE

자료: AIM Bovine Statistics Report 2018



- 소 주요 품종별 도축두수는 아래와 같다.

표 2-15. 아일랜드 품종별 소 도축 처분두수

FR	LM	CH	AA	HE	SI	BB	JE	other
517,520	348,716	297,761	278,351	170,155	58,437	46,465	14,859	70,409

자료: AIM Bovine Statistics Report 2018

- 각 지역별 사육두수는 아래와 같다.

표 2-16. 아일랜드 지역별 소 분포

지역	소의 마릿수(두 수)
경계	797.6
서쪽	938.6
미드웨스트	1,451.5
남동부	1,075.9
서남서	1,467.3
더블린과 중동	735.8
미드랜드	881.8
전체	7,348.5

주: 2018년 6월 기준

자료: 아일랜드 중앙통계국(CSO)

#### □ 도축과 비육

- 2016년 기준 아일랜드에서의 소 사육은 대부분이 가축전업농(전체 농가의 약 57%)에 의해 사육되고 있다(통계청). 이들의 평균적인 목장 크기는 26.5ha이고 평균 사육두수는 31.7두이다. 사육되는 소의 약 80% 이상의 목초비육(grass-fed: 목초, 저장조사료, 사일리지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수소의 약 74%가 거세되어 비육되고 있다(2018년 기준). 가축들은 3월부터 10월까지 풀이 자라는 동안 야외에서 방목된다.
- 소의 평균 도축 월령은 아래와 같다.

표 2-17. 아일랜드 연간 도축두수 중 도축 연령(주령, 월령)

Month	0-6 wks		6 wks-6 Mts		6-12 Mts		12-18 Mts		18-24 Mts		24-30 Mts		30 Mts +		total		total
	M	F	M	F	M	F	M	F	M	F	M	F	M	F	M	F	
total	137	67	143	119	1,711	1,014	7,088	17,908	173,001	163,919	34,116	308,480	136,008	224,407	647,274	615,914	1,233,188

자료: AIM Bovine Statistics Report 2018

- 정부에 의해 승인된 도축장은 모두 33개로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이 아일랜드 도축의 95%를 차지하며, EU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물량은 모두 이들에 의해 도축된다. 이들 도축장의 도축실적은 2018년에 180만두 정도인데, 약 200만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8. 아일랜드 정부 승인 도축장 수

린스터	12	코나흐트	6	
카를로		2	갈웨이	1
킬다레		2	마요	3
킬케니		1	로즈코몬	2
라오스		1	울스터	4
미드		3	카반	1
웍스포트		2	도네갈	2
웨스트미트		1	모나한	1
먼스터	11			
코르크		4		
클레어		1		
리머릭		1		
티퍼리		3		
위터퍼드		2		
<b>총 33 개</b>				

자료: DAFM(아일랜드 농수산식품부)

- 연도별 쇠고기 생산량(큰소+송아지)은 다음과 같다.

표 2-19. 아일랜드 연도별 고기 생산량

단위: 천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쇠고기와 송아지	495	518	582	564	588	617

자료: Central Statistics Office, Ireland (CSO)

## □ 등급과 품질

- 아일랜드에도 등급제가 존재한다. 농수산식품부에 의해 승인된 23개 육가 공장에서는 기계식 등급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EU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약 90% 이상이 기계에 의해 등급이 매겨지고 있다.
- 한국과 같이 마블링을 위해 곡물비육을 하는 사육형태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2018년 기준 아일랜드에서 수출되는 쇠고기 중 냉장육대 냉동육의 비율은 약 2.66대 1이다. 생산량의 90% 이상이 수출된다.

## □ 산업

- 소의 사육은 대부분 가족전업농에 의해 이루어진다.
- 소의 도축과 육가공, 판매는 정부 농수산식품부에 의해 승인된 153개 개별 사업체의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3.3. 수급 현황

- 아일랜드의 쇠고기 생산량은 2017년 기준 640천톤으로 EU 생산량의 8%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프랑스 생산량의 44%에 이른다. 하지만 생산량의 약 88%인 565천톤을 수출하고 있는 쇠고기 수출 국가이다.

- 아일랜드의 쇠고기 수출량 56만여톤 중 87%는 EU 역내로 수출되고, 나머지 13%정도만 EU 역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0. 아일랜드의 쇠고기 생산, 수출입, 1인당 소비량

단위: 천톤, kg

구분	도축	수입	수출	국내생산	인당소비량
2015	564	33	511	589	18.6
2016	588	37	537	605	18.8
2017	617	41	565	640	19.5

자료: 아일랜드 통계청

### 3.4. 관련 정책

#### □ 정부 정책

- 아일랜드 정부는 사육, 도축, 육가공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대신 개별 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참고로 5년 개발혁신프로그램에 약 810만 유로를 계획(2017년 기준)하고 있다.
- 아일랜드 정부 정책은 크게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과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구분된다.
  - 정부는 EU 공동농업정책(CAP)의 직접지불(Direct Payment)을 통해 사육농가를 직접 보조한다. CAP의 대상 품목은 축산물, 유제품, 곡물, 채소, 과일 등 매우 포괄적이다. CAP의 정책조치는 크게 ‘시장가격보조’와 ‘소득정책’으로 구분된다. ‘시장가격보조’는 수매가격보조, 수입관세 부과, 수출 보조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정책’은 단일 직접지불을 통해 주로 지원되고 있다.
  - 정부는 소의 육종 향상, 환경의 지속가능성 향상, 효율성 향상과 농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연구, 컨설팅, 농가교육 등을 통해 농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제도

- 오리진그린(Origin Green)은 아일랜드의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지속가능성 제도이다. 이는 보드 비아(아일랜드 식품청)가 이끄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농부들로부터 식품생산자, 유통업자, 푸드 서비스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아일랜드 식품산업을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로 묶고 있다.
  
- 지속가능한 쇠고기 및 양고기 보증제(SBLAS)는 엄격하고도 독립적으로 검증된 품질보증제도로써, 2005년부터 ISO 17065에 따라 공인되었다. 이 제도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원칙에 기반하여 생산되었음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해 인증된 소 사육농가는 49,700곳이며 전체 생산의 90%에 해당한다.

## 제 3 장

---

### EU/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출 현황 및 경쟁력

#### 1. EU산 쇠고기 수입요청 현황<sup>6</sup>

##### 1.1. 국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해제 절차

- 우리나라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고시되어 있다. 쇠고기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우루과이, 네덜란드, 덴마크를 제외하면 수입이 허용된 국가가 없다.

---

<sup>6</sup>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qia.go.kr>) IRA 진행상황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동·축산물의 경우,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축 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동물전염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IRA, Import Risk Analysis)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입위험분석이란 지정검역물을 통해 동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전파될 경우 예상되는 생물학적,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평가하고, 도출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수입위험분석은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으로 구성되며, 상대국이 수입금지 실행 중인 동·축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총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IRA)<sup>7</sup>을 통과해야 한다.

그림 3-1. 수입위험분석 흐름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7 동·축산물의 수입위험분석은 요청하는 국가에서 위험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국가간 공식채널로 신청하는 1단계(수입허용 가능성 검토)에서부터 2단계(수출국 정부에 가축 위생설문서 송부), 3단계(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단계(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수입위험평가 실시), 5단계(수입허용 여부 결정), 6단계(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단계(수입위생조건 제정 및 고시), 8단계(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허용이 이루어진다.

## 1.2. EU산 쇠고기의 IRA 요청 현황

- EU산 쇠고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6년까지 13개국으로부터 IRA를 요청 받았으며, 현재 EU의 1그룹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은 5단계이며, 기타국가들은 2~4단계 수준이다.
- EU는 WTO/SPS 회의(연 3회)와 한-EU FTA/SPS 회의 및 한-EU 무역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게 쇠고기·돼지고기 등 검역현안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 쇠고기 수입과 돼지고기 지역화 문제에 대한 발언 강도도 심화되고 있다.
- 현재 11개 EU회원국 및 스위스에서 자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EU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외부 연구용역(2011년) 후 요청 순서대로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하고 이를 EU측에 통보(2012년 12월)하였다. 또한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수입위험분석이 진행 중에 있다.

표 3-1.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요청 현황

그룹	EU 국가
1그룹	아일랜드('06), 네덜란드('07), 프랑스('08), 덴마크('11)
2그룹	오스트리아('12), 이탈리아('13), 스페인('13)
3그룹	독일('14.11월), 헝가리('15.1월), 벨기에('15.2월), 스웨덴('15.3월), 영국('17), 폴란드('17) * 스위스('16.12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 EU/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출 현황 및 가격 비교

### 2.1. EU의 쇠고기 수출 및 가격

- 쇠고기 수출입 물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EU는 쇠고기 순수입국으로 분류된다. 특이한 점은 최근 들어 수입과 수출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7년 50만 톤까지 육박했던 순수입량은 2016년에는 2만 4천 톤까지 떨어졌으며, 2017년에는 2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순수입량이 점차 축소될 것이라 예측된다.

표 3-2. EU산 쇠고기 수급표

단위: 천 두, 천 톤, kg,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망)
생산	8,090	7,900	8,022	8,030	7,711	7,384	7,443	7,684	7,830	7,875
수입	467	495	436	366	347	376	372	363	369	375
총공급	8,557	8,395	8,458	8,396	8,058	7,760	7,815	8,047	8,199	8,250
수출	205	150	338	448	296	244	300	303	345	355
소비	8,352	8,245	8,120	7,948	7,762	7,516	7,515	7,744	7,854	7,895
총수요	8,557	8,395	8,458	8,396	8,058	7,760	7,815	8,047	8,199	8,250
1인당 소비량	11.7	11.5	11.4	11.1	10.8	10.5	10.6	10.8	10.9	10.9
자급률	96.9	95.8	98.8	101.0	99.3	98.2	99.0	99.2	99.7	99.7

주: EU산 쇠고기 수급표는 EU-28기준이며, 수출입량은 제3국으로의 수출입 실적임  
자료: USDA/FAS

- 가격측면에서 EU의 수출경쟁력을 살펴보면, 2012년 이전에는 EU산 쇠고기

수출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미국과 호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EU의 평균 수출단가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산, 호주산보다 하락하면서 쇠고기 수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 2016년 현재 EU산 쇠고기 평균가격은 미국산 대비 70%, 호주산 대비 87%로 가격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격격차는 2014년 이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림 3-2>에서와 같이 EU산 쇠고기 수출단가의 최저가격을 비교하면, 미국산과 호주산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뉴질랜드 등 기타산 쇠고기보다도 2008~2012년을 제외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U산 쇠고기 중 수출단가가 낮은 국가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이며, 수출단가가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수출국별 수출단가 비교

단위: 달러/kg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U 평균	5.45	6.35	6.41	6.62	6.35	5.44	5.04
EU 최저가	5.44	4.11	4.06	3.84	3.41	2.93	2.78
미국	4.66	5.19	4.96	5.74	6.94	7.19	7.06
호주	4.12	5.04	4.90	5.15	5.56	5.83	5.73
기타	3.01	3.87	3.59	3.85	4.69	4.37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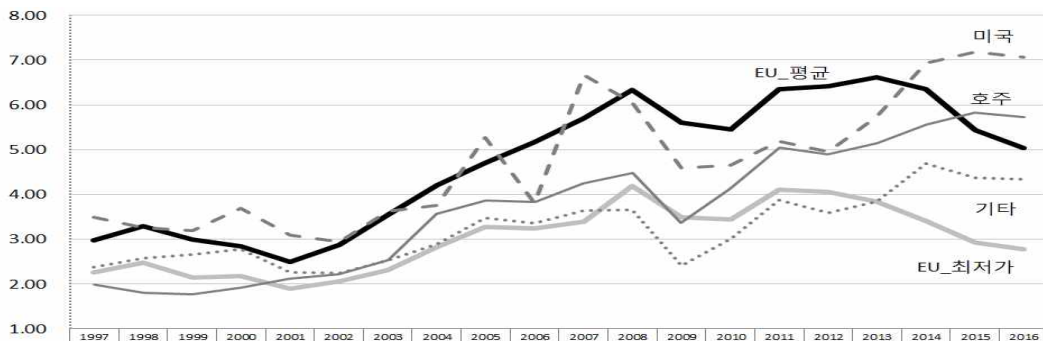
주: 수출국별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CIF기준이며, EU의 CIF는 쇠고기 수입요청국 11개국의 FOB가격에 국제운송비 및 보험 등 제비용 4.5%를 더한 수치임.

자료: UN COMTRADE

- EU산 쇠고기의 품질이 미국산 및 호주산과 비슷할 경우 가격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4년 이후 EU산 쇠고기 평균 수출가격이 미국산과 호주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보이는 이유는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달러화 강세로 유로화 가치가 평가 절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2. 수출국별 가격 경쟁력 비교

단위: 달러/kg



주: 수출국별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CIF기준이며, EU의 CIF는 최고기 수입요청국 11개국의 FOB가격에 국제운송비 및 보험 등 제비용 4.5%를 더한 수치임.

자료: UN COMTRADE.

- 향후에도 달러화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 EU산 쇠고기의 생산량과 수출이 점차 증가되어 물량기준으로 향후 EU산 쇠고기는 무역흑자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산 쇠고기 수입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표 3-4. 국내 쇠고기 주요 수출국별 수출여건 비교(2016년 기준)

단위: 천 마리, 천 톤, 달러/kg

	미국	호주	EU
사육마릿수	91,918	18,879	89,152
쇠고기 생산량	11,502	2,125	7,830
쇠고기 수출량	1,157	1,480	345
평균 수출단가	7.06	5.73	5.04

자료: UN COMTRADE, USDA/FAS.

## 2.2.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쇠고기 수출 및 가격

- 앞 절에서는 EU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고 또한 품질격차(냉동과 냉장)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보다 면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 1 그룹에 속하는 4개 국가들의 평균 수출 단가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5. 1 그룹 국가들의 수출 단가 비교

단위: 천톤, 십만달러, 달러/kg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프랑스	수출량	257	287	240	217	203	205	206	206	
	수출금액	1,311	1,599	1,368	1,297	1,188	1,015	996	1,051	
	수출단가	5.10	5.58	5.70	5.97	5.85	4.96	4.84	5.10	
아일랜드	수출량	319	339	298	302	339	320	358	371	373
	수출금액	1,733	2,111	2,010	2,081	2,246	1,951	2,015	2,190	2,339
	수출단가	5.43	6.23	6.74	6.89	6.62	6.09	5.63	5.90	6.27
네델란드	수출량	383	419	430	412	412	418		442	
	수출금액	2,386	3,076	2,995	3,010	2,957	2,506		2,757	
	수출단가	6.23	7.34	6.96	7.30	7.18	5.99		6.24	
덴마크	수출량	84	82	80	79	76	70	74	65	78
	수출금액	437	469	450	432	384	313	318	344	378
	수출단가	5.20	5.70	5.66	5.49	5.07	4.47	4.30	5.33	4.83

자료: UN COMTRADE(쇠고기 0201, 0202 기준)

-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수출가격경쟁력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호주, 기타국가와 비교한 결과가 표 3-6과 그림 3-3에 있다. 2016년 기준, 기존에 국내로 쇠고기를 주로 수출하는 미국의 수출단가(cif 가격)는 약 7달러, 호주는 약 6달러 수준이다. 아일랜드의 수출단가는 미국산과 호주산 사이이다. 프랑스산 쇠고기는 호주산보다 가격이 약간 낮은 5달러 수준으로 가격측면

에서는 가장 가격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냉동 냉장 등 품질 격차를 정확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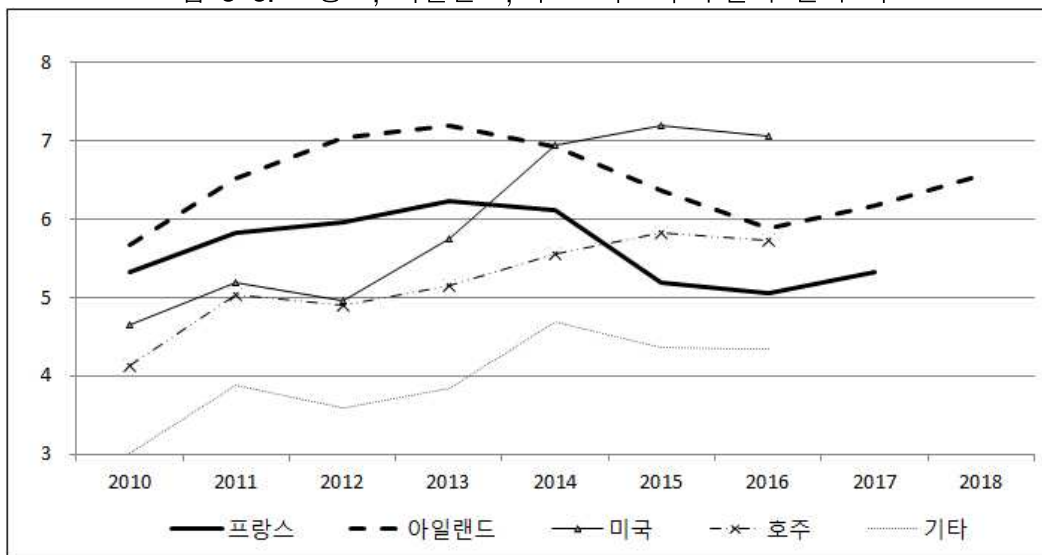
표 3-6. 1 그룹 국가들과 국내로의 주요 쇠고기 수출국 단가 비교  
단위: 달러/kg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프랑스	5.33	5.83	5.96	6.24	6.11	5.18	5.06	5.33		5.63
아일랜드	5.67	6.51	7.04	7.20	6.92	6.36	5.88	6.17	6.55	6.48
네델란드	6.51	7.67	7.27	7.63	7.50	6.26		6.52		7.05
덴마크	5.43	5.96	5.91	5.74	5.30	4.67	4.49	5.57	5.05	5.35
미국	4.66	5.19	4.96	5.74	6.94	7.19	7.06			5.96
호주	4.12	5.04	4.90	5.15	5.56	5.83	5.73			5.19
기타	3.01	3.87	3.59	3.85	4.69	4.37	4.34			3.96

주: 수출국별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CIF기준이며, EU의 CIF는 쇠고기 수입요청국 11개국의 FOB가격에 국제운송비 및 보험 등 제비용 4.5%를 더한 수치임.

자료: UN COMTRADE

그림 3-3. 프랑스, 아일랜드, 주요 쇠고기 수출국 단가 비교



## 2.2.1. 프랑스산 쇠고기 냉장/냉동 수출 단가 비교

- 냉장육과 냉동육의 수출단가는 아래와 같다. 2018년 기준 냉장육의 단가는 4.45유로인 반면 냉동육의 단가는 2.95유로이다.

표 3-7. 프랑스 냉장육과 냉동육의 수출단가

단위: 유로/cwe kg

연도	전체 단가	냉장육 단가	냉동육 단가
2012	4.14	4.34	2.92
2013	4.21	4.39	3.14
2014	4.07	4.36	2.60
2015	4.10	4.38	2.75
2016	4.01	4.30	2.55
2017	4.14	4.44	2.59
2018	4.20	4.45	2.95

- 2018년 기준 프랑스 쇠고기의 국가별 수출량은 다음과 같다. 전체 수출량 22만톤 중 냉장육이 20만톤이고 냉동육이 2만톤 가량 된다. 수출량의 대부분은 EU 역내로 수출되는 것이어서 냉장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 단가도 2018년 기준 냉장육이 4.45유로로 냉동육의 2.95유로에 비해 높다.

표 3-8. 프랑스의 국가별 수출액과 수출량

2018	수출액 (백만 유로(€))	수출량 (천톤, CWE)	단가 (€/CWE kg)
<b>Total meat</b>	<b>957.4</b>	<b>222.9</b>	<b>4,30 €</b>
<b>Total fresh meat</b>	<b>891.4</b>	<b>200.5</b>	<b>4,45 €</b>
Belgium	48.7	11.9	4,09 €
Germany	200.1	44.7	4,48 €
Spain	10.7	1.5	7,30 €
Greece	170.3	45.2	3,77 €
Italy	332.4	70.8	4,69 €
Netherland	30.6	7.1	4,34 €
EU27	841.0	191.2	4,40 €
Extra EU	50.4	9.4	5,38 €
Maghreb	97	2.3	4,27 €
<b>Total Frozen meat</b>	<b>66.0</b>	<b>22.4</b>	<b>2,95 €</b>
Belgium	20.7	6.7	3,07 €
Germany	4.2	1.6	2,55 €
Spain	5.5	1.4	3,94 €
Greece	2.7	1.0	2,69 €
Italy	5.7	1.8	3,12 €
Netherland	2.0	1.0	2,04 €
EU27	55.2	18.4	3,00 €
Extra EU	10.8	3.9	2,73 €

## 2.2.2. 아일랜드산 쇠고기 냉장/냉동 수출 단가 비교

- 아일랜드 쇠고기의 냉장육과 냉동육의 수출량은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 전체 쇠고기 수출량은 53만6천톤이다. 전체 수출물량의 87%인 46만5천톤은 EU 역내로 수출되고, 나머지 13%인 7만1천톤은 EU 역외로 수출된다.

표 3-9. 아일랜드의 전세계로의 쇠고기 수출량

국가	수출					
	2016년 1월~12월		2017년 1월~12월		2018년 1월~12월	
	유로	톤	유로	톤	유로	톤
오스트리아	2,561	660	2,016	484	4,668	1,503
바레인	329	46	26	1	91	13
벨기에	50,854	7,375	52,691	6,768	54,039	5,834
불가리아	346	81	483	78	671	112
캐나다	1,687	450	2,728	618	2,179	585
중국	269	149			2,842	1,437
코모로스	66	42	58	43	10	20
콩고	207	278	12	20	127	151
크로아티아			129	23	670	120
키프로스	88	15	139	10	400	36
체코	13,105	2,546	15,333	2,709	15,517	2,863
덴마크	38,461	9,566	39,933	12,529	40,367	10,799
에스토니아	92	33	159	25	320	70
핀란드	2,412	444	2,607	410	2,117	343
프랑스	207,414	52,901	221,502	51,825	233,146	50,174
가봉	1,284	824	351	250	125	50
독일	134,299	16,927	139,486	17,231	140,588	17,786
가나	7,972	8,346	9,441	9,071	9,454	9,319
지브롤터	63	16	62	16	60	14
영국	1,001,530	238,216	1,044,380	235,924	1,090,870	237,846
그리스	285	78	371	69	911	84
기니	207	278	302	381	84	126
홍콩	42,883	16,035	76,580	25,543	62,186	19,289
헝가리의	1,691	634	1,112	453	1,072	350
이스라엘	2,219	353	2,143	372	896	155
이탈리아	163,532	22,269	178,538	25,108	184,505	26,667
아이보리 코스트	2,661	4,278	4,571	6,794	3,586	4,834
자메이카	88	17			39	25
일본	7,530	1,322	6,892	1,260	3,626	842
라트비아			6	1	8	3
라이베리아	1,179	1,084	579	648	225	300
리비아	320	147	362	199	435	179
리투아니아	419	357	522	198	450	126
룩셈부르크	3,705	275	3,774	275	4,768	362
몰타	6,780	933	7,485	982	5,849	810
모로코					54	15
모잠비크	573	757	189	254	382	557
네덜란드	201,652	39,726	195,032	38,661	200,530	40,169



북아일랜드	113,617	31,928	118,462	33,703	115,293	31,785
노르웨이	243	55	618	110	526	112
파푸아뉴기니					38	25
필리핀	23,664	14,133	39,116	20,400	31,692	17,674
폴란드	11,697	4,467	12,204	4,306	10,100	3,628
포르투갈	12,245	2,752	17,063	3,439	16,119	3,155
루마니아	21	20	469	96	1,386	234
사우디아라비아	518	197	619	258	58	26
세네갈	2,693	3,379	2,291	2,850	3,214	3,935
시에라리온	102	125	20	25	35	50
싱가포르	798	290	1,560	624	1,024	312
슬로바키아	2,101	432	671	111	2,922	534
슬로베니아			197	19	167	13
남아프리카공화국	1,591	1,792	2,456	1,997	3,008	2,614
스페인	58,766	10,020	60,665	10,176	56,709	10,389
스웨덴	96,111	26,947	97,738	23,810	87,540	19,669
스위스	25,027	2,121	26,835	2,311	24,624	2,103
토고	875	924	60	76	36	52
트리니다드토바고	1,453	448	1,025	216	552	141
튀니지	161	155	80	79	377	328
아랍에미리트	800	62	801	63	622	24
미국	9,840	1,772	7,719	1,571	9,515	2,135
베트남	4,042	1,741	3,504	1,194	4,876	1,686
총 소고기	2,267,383	<b>532,544</b>	2,405,258	<b>547,447</b>	2,438,518	<b>536,152</b>

자료: Central Statistics Office, Ireland (CSO)

- 수출물량을 냉장육과 냉동육으로 나누어 보면, 전체 53만4천톤 중 신선냉장육은 34만5천톤(65%)이고 냉동육은 12만9천톤(24%)에 이른다. 신선냉장육은 kg당 5.4유로이고 냉동육은 2.8유로이다. 냉장육은 프랑스산(4.45유로)에 비해 약간 높은 반면, 냉동육은 프랑스산(2.95유로)에 비해 약간 낮다.

표 3-10. 아일랜드의 냉장육과 냉동육의 수출량(2018년)

	유로(€)	톤	단가:유로/kg
신선,냉장	1,844,673	344,667	5.4
냉동	359,732	129,412	2.8
기타*	228,272	60,049	3.8
총	2,432,677	534,119	4.6

자료: Central Statistics Office, Ireland (CSO)

- 아일랜드의 EU 역내로의 쇠고기 수출량은 다음과 같다.

표 3-11. EU 회원국의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량(냉육+냉동육)

국가	수출					
	2016년 1월~12월		2017년 1월~12월		2018년 1월~12월	
	유로	톤	유로	톤	유로	톤
오스트리아	2,561	660	2,016	484	4,668	1,503
벨기에	50,854	7,375	52,691	6,768	54,039	5,834
불가리아	346	81	483	78	671	112
크로아티아			129	23	670	120
키프로스	88	15	139	10	400	36
체코	13,105	2,546	15,333	2,709	15,517	2,863
덴마크	38,461	9,566	39,933	12,529	40,367	10,799
에스토니아	92	33	159	25	320	70
핀란드	2,412	444	2,607	410	2,117	343
프랑스	207,414	52,901	221,502	51,825	233,146	50,174
독일	134,299	16,927	139,486	17,231	140,588	17,786
지브롤터	63	16	62	16	60	14
영국	1,001,530	238,216	1,044,380	235,924	1,090,870	237,846
그리스	285	78	371	69	911	84
헝가리의	1,691	634	1,112	453	1,072	350
이탈리아	163,532	22,269	178,538	25,108	184,505	26,667
라트비아			6	1	8	3
리투아니아	419	357	522	198	450	126
룩셈부르크	3,705	275	3,774	275	4,768	362
몰타	6,780	933	7,485	982	5,849	810
네덜란드	201,652	39,726	195,032	38,661	200,530	40,169
북아일랜드	113,617	31,928	118,462	33,703	115,293	31,785
폴란드	11,697	4,467	12,204	4,306	10,100	3,628
포르투갈	12,245	2,752	17,063	3,439	16,119	3,155
루마니아	21	20	469	96	1,386	234
슬로바키아	2,101	432	671	111	2,922	534
슬로베니아			197	19	167	13
스페인	58,766	10,020	60,665	10,176	56,709	10,389
스웨덴	96,111	26,947	97,738	23,810	87,540	19,669
총 소고기	2,123,848	469,620	2,213,229	469,440	2,271,761	465,477

자료: Central Statistics Office, Ireland (CSO)

## 제 4 장

---

### EU/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입 가능성 검토

#### 1. 일본의 EU산 쇠고기 수입 사례 검토

- 현재 프랑스산과 아일랜드산 쇠고기를 포함한 EU산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해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일본의 경우 2013년 위생조건 제정일 기준 이전에는 EU산 쇠고기는 아일랜드산만 수입되고 있었다. 위생조건 제정 이후 2013년 4개국(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의 쇠고기가 수입되었으며, 2014년 1개국(폴란드), 2016년 3개국(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2017년 1개국(리투아니아)로 확대되었다.
- 일본의 EU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3년 120톤에서 2016년 890톤으로 증가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2,180천 달러에서 6,680천 달러로 증가하였다.

- 일본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은 미국과 호주로 전체 수입량의 대략 90%를 차지한다. 호주산 수입량이 가장 많고 그 뒤로 미국산이 많으며, 뉴질랜드산은 소량에 그치고 있다. 이들 전체 수입량 중 EU 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HS 0201+0202) 0.2% 정도에 불과하다.

표 4-1. 일본의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과 비중

단위: 톤

구분	전체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물량	물량	%	물량	%	물량	%	물량	%
HS code 0201(냉장육)									
2010년	211,445	44,130	20.9	155,036	73.3	7,316	3.5		
2011년	213,400	61,916	29.0	139,764	65.5	7,531	3.5	26	0.0
2012년	212,425	71,605	33.7	128,688	60.6	7,975	3.8	2	0.0
2013년	212,305	86,297	40.6	115,649	54.5	6,610	3.1	84	0.0
2014년	219,253	83,528	38.1	125,457	57.2	5,541	2.5	86	0.0
2015년	204,668	67,592	33.0	127,704	62.4	4,870	2.4	94	0.0
2016년	229,110	101,725	44.4	116,978	51.1	5,441	2.4	121	0.1
2017년	265,850	137,025	51.5	117,562	44.2	5,576	2.1		
2018년	278,814	136,492	49.0	127,448	45.7	6,403	2.3		
HS code 0202(냉동육)									
2010년	288,086	47,488	16.5	196,082	68.1	24,268	8.4		
2011년	303,831	58,689	19.3	198,979	65.5	22,207	7.3		
2012년	301,761	60,316	20.0	189,712	62.9	23,437	7.8		
2013년	321,949	99,758	31.0	170,273	52.9	22,819	7.1	36	0.0
2014년	299,456	105,147	35.1	155,385	51.9	18,570	6.2	261	0.1
2015년	289,317	97,835	33.8	160,876	55.6	11,782	4.1	996	0.3
2016년	274,116	90,397	33.0	155,845	56.9	10,953	4.0	769	0.3
2017년	307,090	102,555	33.4	169,950	55.3	10,173	3.3		
2018년	328,644	110,936	33.8	184,234	56.1	7,545	2.3		
HS code 0201+0202(냉장육+냉동육)									
2010년	499,531	91,618	18.3	351,118	70.3	31,584	6.3		
2011년	517,231	120,605	23.3	338,744	65.5	29,739	5.7	26	0.0
2012년	514,186	131,921	25.7	318,400	61.9	31,412	6.1	2	0.0
2013년	534,254	186,056	34.8	285,923	53.5	29,429	5.5	120	0.0
2014년	518,708	188,675	36.4	280,842	54.1	24,112	4.6	347	0.1
2015년	493,986	165,427	33.5	288,581	58.4	16,652	3.4	1,090	0.2
2016년	503,226	192,122	38.2	272,824	54.2	16,393	3.3	890	0.2
2017년	572,940	239,580	41.8	169,950	29.7	15,748	2.7		
2018년	607,458	247,428	40.7	311,682	51.3	13,948	2.3		

자료: UN Comtrade, EU 자료는 Global Trade Atlas.

- 위생조건 제정 이후 약 5년 정도가 지났지만 EU산 쇠고기의 일본 시장 내 점유율은 0.2%에 그치고 있다. 즉, EU산 쇠고기가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해 졌지만 기존의 일본 쇠고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망을 좀처럼 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가 쇠고기 순수입국임을 감안하면 일본으로의 EU산 쇠고기 수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4-2. 일본의 EU산 쇠고기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관세코드: 0201(냉장)		관세코드: 0202(냉동)		합계(냉장+냉동)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일본의 <b>EU산</b> 쇠고기 수입현황						
2011년	65	26	-	-	65	26
2012년	70	2	-	-	70	2
2013년	1,717	84	464	36	2,181	120
2014년	1,574	86	1,634	261	3,207	347
2015년	1,268	94	3,994	996	5,262	1,090
2016년	2,210	121	4,470	769	6,680	890
일본의 <b>프랑스산</b> 쇠고기 수입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1,512	57	233	18	1,745	75
2014년	1,393	51	510	33	1,903	85
2015년	1,075	45	946	154	2,021	199
2016년	1,514	59	542	67	2,056	126
2017년	1,427	55	248	20	1,675	75
2018년	966	37	123	9	1,090	46
일본의 <b>아일랜드산</b> 쇠고기 수입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30	202	730	202
2018년	37	1	301	69	338	70

자료: EU산 전체는 Global Trade Atlas, 프랑스와 아일랜드 자료는 UN Comtrade.

- 일본의 경우 EU산 쇠고기 수입을 냉장과 냉동으로 나누어 보면, 2016년 기준으로 냉장물량은 121톤이고 냉동물량은 769톤으로 모두 890톤이 수입되어 냉동물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최근 2018년 기준, 프랑스산 쇠고기는 냉장이 37톤 냉동이 9톤으로 모두 46톤이 수입되어 프랑스산 쇠고기는 대부분 고급 냉장육이 소량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냉장이 1톤 냉동이 69톤으로 모두 70톤이 수입되어 대부분이 냉동육 형태로 소량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수출 단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냉장육(HS code 0201)을 비교하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대략 5~10불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프랑스산과 아일랜드산은 20불 이상으로 굉장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냉동육(HS code 0202)을 비교하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대략 3~4불 내외로 아일랜드산은 비슷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프랑스산은 이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가격대만을 비교하면, 아일랜드산 냉동육 쇠고기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 등과 경쟁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프랑스산은 이들보다 상당히 고가로 가격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일본으로의 수출 국가별 쇠고기 단가 비교(0201, 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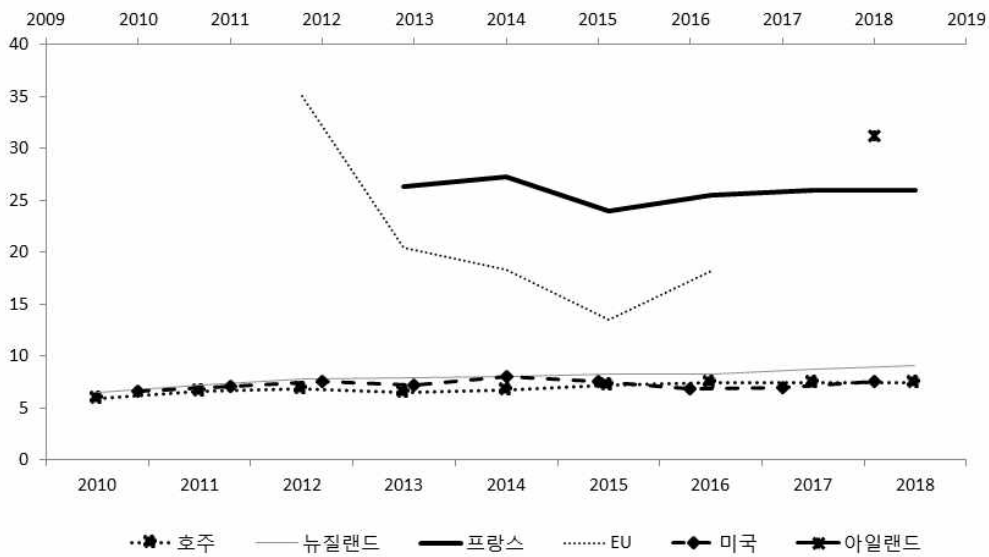


그림 4-2. 일본으로의 수출 국가별 쇠고기 단가 비교(0202, 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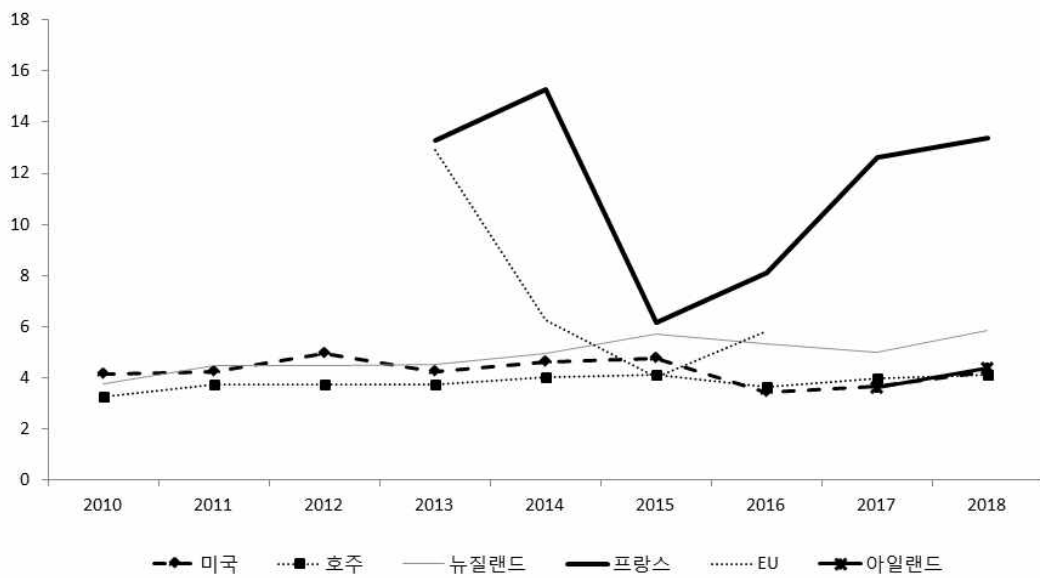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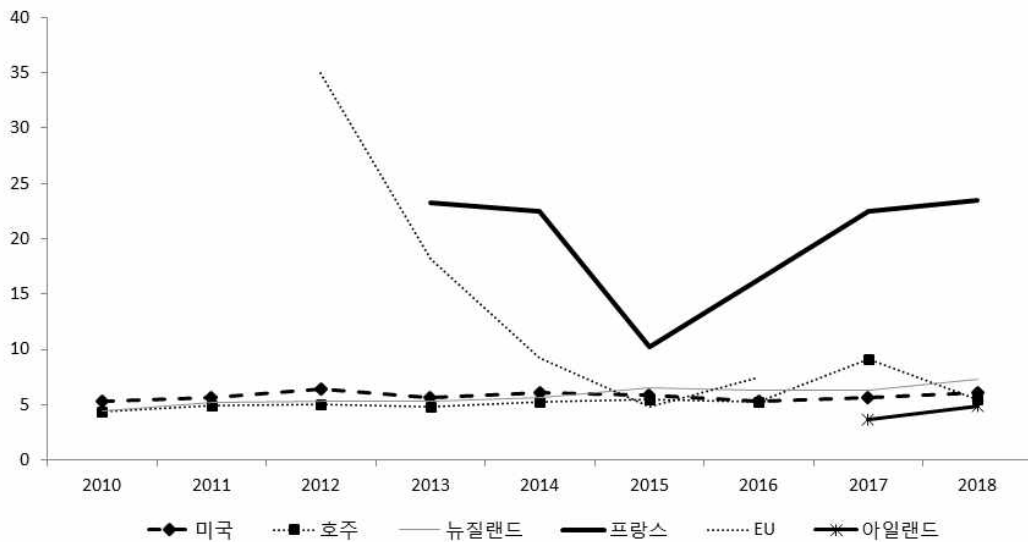


그림 4-3. 일본으로의 수출 국가별 쇠고기 단가 비교(0201+0202, 냉장+냉동)



## 2. EU/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국내 수입 가능성 검토

### 2.1. EU/프랑스/아일랜드의 쇠고기 수출 가능 여력 검토

- EU의 소 사육마릿수는 2016년 8천9백만 마리로 감소세가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에 수입을 요청한 4개국의 경우 프랑스의 사육 마릿수는 1천9백만 마리로 EU 전체 소의 약 21%를 차지하고, 아일랜드는 661만



마리로 7%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소 사육두수는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고, 아일랜드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EU의 쇠고기 생산량은 2016년 기준 약 780만톤 수준이며 수입량은 36만9천톤이고 수출량은 34만 5천톤이다. EU는 순수입량이 2만 4천톤으로 쇠고기 순수입국이다. 다만, 최근 들어 수입과 수출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수출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커지고 있으나 수출 확대 물량이 소량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 EU는 쇠고기 순수입국がい므로 역외로의 수출량 증가는 역내 시장 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 역외로의 수출물량을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의 유통선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한국처럼 새로운 시장에 물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표 4-3. EU산 쇠고기 생산, 수입, 수출 비교

단위: 천 두, 천 톤, kg,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망)
생산	8,090	7,900	8,022	8,030	7,711	7,384	7,443	7,684	7,830	7,875
수입	467	495	436	366	347	376	372	363	369	375
수출	205	150	338	448	296	244	300	303	345	355

주: EU산 쇠고기 수급표는 EU-28기준이며, 수출입량은 제3국으로의 수출입 실적임  
자료: USDA/FAS

- 프랑스 쇠고기 수급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쇠고기 생산량은 145만 8천톤으로 EU 생산의 19%를 차지하고, 쇠고기 수출량은 역내교역량 20만톤과 역외 수출량 7천톤으로 약 20만 7천톤에 이른다. 역외 수출량이 크지 않아 역외로의 수출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일랜드 쇠고기 수급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쇠고기 생산량은 645만톤

으로 EU 생산의 8%를 차지하고, 쇠고기 수출량은 56만 5천톤으로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쇠고기 수출량 53만6천톤 중 EU 역외로의 수출량은 13%인 7만1천톤에 불과하다.

표 4-4. EU 및 수입허용 요청국(1그룹)의 소 사육마릿수 추이

단위: 천 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EU	87,054	87,106	87,619	88,406	89,152
프랑스	19,052 (22%)	19,129 (22%)	19,271 (22%)	19,406 (22%)	19,004 (21%)
아일랜드	6,253 (7%)	6,309 (7%)	6,243 (7%)	6,422 (7%)	6,613 (7%)
네덜란드	3,985	4,090	4,169	4,315	4,294
덴마크	1,607	1,583	1,553	1,566	1,554

## 2.2. 일본사례의 시사점

- 일본의 경우 2013년 위생조건 제정일 기준 이전에는 EU산 쇠고기는 아일랜드산만 수입되고 있었고, 위생조건 제정 이후 EU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화되었다.
- 일본의 EU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3년 120톤에서 2016년 890톤으로 증가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2,180천 달러에서 6,680천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6년 기준 일본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50만3천톤이고 이 중 미국산과 호주산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EU산 쇠고기는 890톤으로 전체 수입의 0.2%에 불과하

- 다.
- 일본의 경우 EU산 쇠고기 수입을 냉장과 냉동으로 나누어 보면, 2016년 기준으로 냉장물량은 121톤이고 냉동물량은 769톤으로 모두 890톤이 수입되어 냉동물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최근 2018년 기준, 프랑스산 쇠고기는 냉장이 37톤 냉동이 9톤으로 모두 46톤이 수입되어 프랑스산 쇠고기는 대부분 고급 냉장육이 소량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냉장이 1톤 냉동이 69톤으로 모두 70톤이 수입되어 대부분이 냉동육 형태로 소량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랑스산과 아일랜드산 냉장육 가격은 20불 이상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의 5~10불과 비교해 굉장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육을 비교하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대략 3~4불 내외로 아일랜드산은 비슷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프랑스산은 이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만을 비교하면, 아일랜드산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 등과 경쟁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프랑스산은 이들보다 상당히 고가로 가격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산이 냉동육이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수입량은 소량에 그치는 것을 볼 때, 쇠고기 수입이 수입단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선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2.3. EU산 쇠고기의 국내로의 수입 가능성 검토

- 일본 사례에서 언급하였듯이, 쇠고기 수출이 단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의 수급상황과 유통선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EU가 쇠

고기 순수입국인점 그리고 미국산과 호주산이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프랑스산과 아일랜드산 쇠고기가 기존의 수출국가들의 유통선을 잠식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 각 수출 국가들의 수출단가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EU산 쇠고기가 상대적으로 비쌌으나 최근 달러의 강세에 힘입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단가가 가장 높고 호주산과 프랑스산, 아일랜드산 등이 대략 5불 정도 수준(쇠고기 전체 평균 단가 비교)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달러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상대적으로 EU산 쇠고기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일본의 사례처럼, 전체 쇠고기를 냉장과 냉동으로 나누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비교해보자. 프랑스산과 아일랜드산 냉장육 가격은 20불 이상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의 5~10불과 비교해 굉장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육을 비교하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대략 3~4불 내외로 아일랜드산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여 가격경쟁이 가능하지만 프랑스산은 이보다 훨씬 비싸 가격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EU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이루어지면 프랑스산 쇠고기는 일부 고가의 냉장육이 소량 수입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냉동육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으나 미국산과 호주산이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는 쉽지 않아 냉동육이 일부 소량 들어오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제 5 장

### 요약 및 결론

- 광우병(BSE)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EU산 쇠고기 수입금지에 대해 EU측은 2006년부터 수입을 요청하였으며, 아일랜드와 프랑스 등 11개 국가에 대하여 수입위험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 EU산 쇠고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6년까지 13개국으로부터 IRA를 요청 받았으며, 현재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은 5단계이며, 기타국가들은 2~4단계 수준이다.
  - 이에 최근 정부 및 농업계에서는 EU산 쇠고기 시장개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EU산 쇠고기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 해제가 국내 축산분야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본 연구는 EU산 쇠고기의 SPS 조치 해제가 우리나라 축산업 및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국내로의 수출 가능성과 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 EU의 소 산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16년 기준, EU의 소 사육마릿수는 89,152천마리로 전 세계의 9.0%를 차

지(세계 5위)한다.

- 쇠고기 생산량 기준으로는 EU산이 7,830천 톤으로 전 세계의 12.9%를 차지(세계 3위)한다.
- 쇠고기 소비량으로는 EU가 7,854천 톤으로 전 세계의 13.4%를 차지(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EU의 쇠고기 생산량은 2016년 기준 약 780만톤 수준이며 수입량은 36만9천톤이고 수출량은 34만 5천톤이다. EU는 순수입량이 2만 4천톤으로 쇠고기 순수입국이다. 다만, 최근 들어 수입과 수출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수출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커지고 있다.

○ 프랑스의 소 산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소 사육두수(2017년 기준)는 19,244천두로 EU의 22%를 차지한다.
- 쇠고기 생산량(2016년 기준)은 1,458천톤으로 EU의 19%를 차지한다.
- 이 중 수출량은 약 20만 7천톤으로, 20만톤은 EU 역내로의 수출이고 나머지 7천톤만이 EU 역외로 수출되고 있다.
- 소 사육농가수(2016년 기준)는 169,860호로 EU의 7%에 해당한다.
- 비육용 소의 80%는 큰 범주에서 목초사육(grass-fed)에 해당된다.
- 도체분류체계에 현재로서는 마블링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나,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 프랑스는 동물복지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 수소의 거세비율은 높지 않다. 2010년 기준 거세비율이 10%였는데 2018년 기준 8%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아일랜드의 소 산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소 사육두수(2018년 기준)는 6,594천두로 EU의 7%에 해당한다.
- 소 사육농가수(2016년 기준)는 109,400호로 EU의 5%를 차지한다.
- 쇠고기 생산량(2017년 기준)은 640천톤으로 EU의 8%를 차지한다.
- 이 중 수출량은 565천톤(생산량의 88%)으로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수출 국가이다.

- 수출량의 약 87%는 EU 역내로 수출되며, 나머지 13%(7만 1천톤) 정도가 EU 역외로 수출되고 있다.
  - 사육되는 소의 약 80% 이상의 목초비육(grass-fed: 목초, 저장조사료, 사일리지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수소의 약 74%가 거세되어 비육되고 있다.
- EU산 쇠고기의 국내로의 수입 가능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일본의 경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 일본의 경우 2013년 위생조건 제정일 기준 이전에는 EU산 쇠고기는 아일랜드산만 수입되고 있었고, 위생조건 제정 이후 EU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화되었다.
  - 일본의 EU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3년 120톤에서 2016년 890톤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 일본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 중 미국산과 호주산이 여전히 90% 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EU산 쇠고기는 890톤으로 전체 수입의 0.2%에 불과하다.
  - EU산 쇠고기가 시장 잠식 및 기존의 기타 국가들(미국과 호주 등)을 쉽게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의 경우 EU산 쇠고기 수입을 냉장과 냉동으로 나누어 보면, 2016년 기준으로 냉장물량은 121톤이고 냉동물량은 769톤으로 모두 890톤이 수입되어 냉동물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랑스산 쇠고기는 냉장이 37톤 냉동이 9톤으로 모두 46톤이 수입되어 프랑스산 쇠고기는 대부분 고급 냉장육이 소량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냉장이 1톤 냉동이 69톤으로 모두 70톤이 수입되어 대부분이 냉동육 형태로 소량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랑스산과 아일랜드산 냉장육 가격은 20불 이상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의 5~10불과 비교해 굉장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육을 비교하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대략 3~4불 내외로 아일랜드산은 비슷한 가격대

를 보여주고 있지만, 프랑스산은 이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만을 비교하면, 아일랜드산 냉동육만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 등과 경쟁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산이 냉동육이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수입량은 소량에 그치는 것을 볼 때, 쇠고기 수입이 수입단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선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EU산 쇠고기(프랑스와 아일랜드산 포함)의 국내로의 수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EU는 쇠고기 순수입국가이므로 역외로의 수출량 증가는 역내 시장 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 역외로의 수출물량을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의 유통선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한국처럼 새로운 시장에 물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 또한,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비육 체계는 대부분 목초 비육에 의존하고 있어 마블링 위주의 등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한우를 쉽게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의 사례를 볼 때, EU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이루어지면 프랑스산 쇠고기는 일부 고가의 냉장육이 소량 수입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냉동육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으나 미국산과 호주산이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는 쉽지 않아 냉동육이 일부 소량 들어오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결과적으로 비육체계, 유통선, 품질(냉장과 냉동)에 따른 단가의 차이, 일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EU산 쇠고기의 국내로의 수입이 허용되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문헌

- 송우진·이현근·남경수·김만이·명수환. 2017. 「한·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변화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럽 돼지고기 및 쇠고기 관련 세미나 자료집. 2019년 6월 13일 서울 롯데호텔.
- 이형우·강대운·한석호. 2016.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 시장 차별화에 대한 실증 분석”, 「농촌경제」 제39권 제3호 pp.1-21.
- 한석호, 서홍석, 염정완, 김충현. 2015.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5 운용·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석호·염정완·서홍석. 2016. “사과 SPS 수입금지 조치 해제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농촌경제」 제39권 제3호 pp.49-77.
- 한석호. 2016. “한·EU FTA 농업부문 사후영향평가”,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7권 제7호 pp.648-655.
- 한석호·남경수·염정완. 2016.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 한석호·서홍석·염정완. 2017. “일본산 배 SPS 수입금지 조치 해제의 사전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8권 제1호 pp.599-60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업전망 2016: 급변하는 농업농촌. 내일을 기획한다」
- AIM Bovine Statistics Report 2018
- American University. Mandala Project. Japan-US Apple Trade, Case Study of Mandala Projects,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C.
- Beghin, J.C. and J.C. Bureau. 2001. “Quantification of Sanitary, Phytosanitary,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for Trade Policy Analysis.” Working Paper 01-WP 291. Center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owa State University Ames, Iowa 50011-1070.
- Calvin, L., B. Krissoff. 1998.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 Case Study of Phytosanitary Barriers and U.S.-Japanese Apple Trade.”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23(2): 351-366.
- Disdier, A.C., L. Fontagne, and M. Mimouni. 2007.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Agricultural Trade: Evidence from SPS and SPS Agreements.” CEPII Working Paper No. 2007-4, Paris.
- <https://agriculture.gouv.fr/liste-des-etablissements-agrees-ce-conformement-au-reglement-ce-n>

deg8532004-lists-ue-approved

[https://fichiers-publics.agriculture.gouv.fr/dgal/ListesOfficielles/SSA1\\_VIAN\\_ONG\\_DOM.pdf](https://fichiers-publics.agriculture.gouv.fr/dgal/ListesOfficielles/SSA1_VIAN_ONG_DOM.pdf)

UNCTAD. 2013. Classification of Non-Tariff Measures February 2012 Version. UNCTAD/DITC/TAB/2012/2. <http://goo.gl/1UaEtl>

Wales, T.J., A.D. Woodland. 1983. "Estimation of Consumer Demand systems with Binding Nonnegativity Constraints" *Journal of Econometrics* 21: 263-285.

Wilson, J.S., T. Otsuki, and B. Majumdsar. 2003. "Balancing Food Safety and Risk: Do Drug Residue Limits Affect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12(4): 377-402.

Xiong, B. and J. Beghin. 2011. "Does European Aflatoxin Regulation Hurt Groundnut Exporters from Africa?"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doi 10.1093/erae/jbr062.

Yue, C., and J.C. Beghin. 2009. "Tariff Equivalent and Forgone Trade Effects of Prohibitiv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91(4): 930-941.

Yue, C., and J.C. Beghin, and H.H. Jensen. 2006. "Tariff Equivalen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with Imperfect Substitution and Trade Cos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8(4): 947-960.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http://www.qia.go.kr>